

이 자료는 지난 9월 7일 산업자원부와 대한석유협회 공동 주체로 개최된 석유산업 발전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발췌한다.

-편집자 주-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최 두 환
〈 대한석유협회 회장 〉

I. 머리말

- 석유는 우리나라 총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체 및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기초 에너지원임.
 - 그 동안 국내 석유산업은 1,2차 석유위기 등을 극복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이며 저가 공급에 주력.
- '97년 석유가격 및 수출입 자유화 등 본격적인 자유화가 시작된 이래, 현재 국내 석유산업은 전면 자유화된 상황임.
 - '98년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석유정제업 및 주유소업에 대한 대외개방을 조기 시행
- 이 같은 자유화 이전에 국내 석유산업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보호하에 성장하여 왔던 것이 사실임.
 - 지난 해 군납유 입찰 담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도 이 같은 자유화 정착 과정의 하나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림.
- 현재 국내석유산업은 지속적인 수요감소라는 어려운 환경 하에 여러가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바, 앞으로도 국가 기반산업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이 자리에서는 국내 석유산업이 처한 현황/문제점 및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II. 석유산업의 현황

1. 석유산업의 위치

① 석유의존도

- 총에너지 수요량 중 석유의존도 : 51.3%
(2001 상반기)

〈에너지원별 수요의존도 추이〉

(단위 : %)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1-6
석 유	48.2	53.8	62.5	60.4	54.6	53.7	52.0	51.3
석 탄	39.1	26.2	18.7	19.3	21.7	21.0	22.3	21.6
LNG	-	3.2	6.1	8.2	8.4	9.3	9.8	11.5
수 력	1.6	1.7	0.9	0.7	0.9	0.8	0.7	0.4
원자력	7.5	14.2	11.1	10.7	13.5	14.2	14.3	14.0
기 타	3.6	0.9	0.7	0.7	0.9	1.0	1.0	1.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자료: 에너지통계연보

② 석유수입 대금 비중

- 총수입액 중 석유수입액 비중 : 19.5%(2001 상반기)
- 석유수출액은 총 수출액의 5.6% 수준(2001 상반기)

〈석유수출입대금 비중〉

(단위 : 억\$)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1-6
총수입액(A)	698.4	1,351.2	932.8	1,197.5	1,604.8	725.0
석유수입(B)	90.1	152.6	141.6	184.4	312.2	141.6
비중(B/A, %)	12.9	11.3	15.1	15.4	19.5	19.5
총수출액(C)	651	1,250.6	1,323.1	1,436.8	1,722.7	786.7
석유수출(D)	10.8	29.9	44.4	56.5	93.5	44.2
비중(D/C, %)	1.7	2.4	3.4	3.9	5.4	5.6

※ 석유순수입액(2000년) : 218.7억\$

③ 정유업계 경영실적

- 매출액은 국제 원유가의 폭등 등으로 전년대비 39.7%증가한 43조 5천억원 시현.
-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99년보다 9,355억원 감소한 2,194억원의 적자를 기록.
- 이는 작년 말 급격한 환율상승에 따른 막대한 환차손과 영업외 손실(공정위 군납유 과징금 등)에 기인.

〈정유산업의 경영실적 추이〉

(단위 : 억원)

	1991	1995	1998	1999	2000
매출액	107,859	186,179	308,328	311,392	434,931
영업이익	3,622	9,035	23,232	18,135	20,417
경상이익	-14	5,029	12,404	8,974	-672
순이익	-475	3,462	6,291	7,161	-2,194

2. 석유정제능력 및 시설고도화 현황

① 석유정제능력

- 현재 2,438천B/D의 상압증류시설 보유(세계 5위)

〈정제능력 추이〉

(단위 : 천BPSD)

	1990	1994	1995	1997~
정제능력	840	1,700	1,818	2,438

② 고도화 시설

- 현재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등 고도화시설 비율은 17.6% 수준에 불과(428천B/D보유).

〈외국의 고도화 비율〉

(단위 : %)

	일본	중국	대만	한국
고도화비율	30.1	24.1	21.4	17.6

자료 : OGJ 1998.12.21

3. 석유수급현황

① 석유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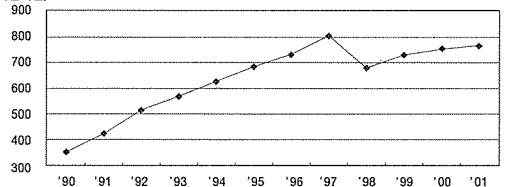
- 최근 들어 석유제품 소비 증가세는 현저히 둔화.
- 2001년 상반기에는 산업경기둔화 및 석유소비 위축 등으로 0.8%감소.
- 2005년까지 국내 석유수요는 연평균 2.6% 증가 전망('05년에 843백만배럴 예상)

〈석유제품 소비추이〉

(단위 : 천배럴%)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예상)
소비량	721,063	793,893	669,804	719,658	742,566	760,000
증가율	(6.5)	(10.1)	(-15.6)	(7.4)	(3.2)	(2.4)

(백만배럴)



○ 석유제품수요의 경질화 추세 지속.

〈석유수요구조의 경질화 추이〉

(단위 :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1-6
중질유	54.2	39.5	31.9	26.2	20.1	19.8
경질유	43.3	53.3	58.1	64.0	68.6	68.9
LPG	2.5	7.5	10.0	9.8	11.4	11.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② 석유수출입 추이

○ 석유제품 수출은 '99년 이후 점차 증가세 둔화
- 2001년의 경우 석유소비가 감소한 휘발유 및 등유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B-C유는 감소.

○ '97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온 석유제품 수입은 발전용 B-C유와 수입사의 석유제품 수입 증가로 2001년에 전년대비 9.6% 증가.

〈석유제품 수출입 추이〉

(단위 : 천배럴, %)

	1996	1997	1998	1999	2000
수출	159,831 (30.2)	232,480 (45.4)	296,939 (27.6)	298,181 (0.5)	306,725 (2.9)
수입	215,214 (2.9)	190,072 (-17.7)	179,365 (-5.6)	191,720 (6.9)	210,167 (9.6)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수출은 벙커링 제외, 산자부

4. 석유유통시장 현황

① 유통경로

○ 석유제품의 유통경로는 정유사(수입사) → 대리점 → 주유소(일반판매소)의 3단계로 구성.
- '98년부터 정유사와 주유소(일반판매소)간의 직거래 허용으로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경질제품의 유통구조는 점차 2단계로 축소.

② 정유사별 대리점/주유소 현황

○ 대리점 현황

- 대리점 수는 2000년 209개로 크게 늘어났으나, 2001.7월 현재 158개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SK를 제외한 타 정유사들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판매기능을 본사에 흡수하여, 정유사 직영대리점은 1개사에 불과.

○ 주유소 현황

- '90년 3,400여 개에 불과하던 주유소수는 '91년부터 시작된 주유소간 거리기준 완화 또는 폐지를 계기로 '95년 1만개 돌파.

- '98년 41개에 불과하던 무폴 주유소는 2001년 7월말 현재 476개로 전체 주유소의 4.5%를 차지.

〈정유사별 대리점 및 주유소 현황〉

(2001.7월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S K	L G	S-오	현대	기타	합계
대리점	27	21	24	34	52	158
주유소	3,719	2,749	1,374	2,178	519※	10,432

※ 수입사 풀 주유소 43개 포함.

○ 일반판매소는 7,212개소('00년 말 기준)로 '9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5. 해외석유개발 현황

○ 총 23개국 53개 사업에 진출.

- 우리나라의 자주개발원유 도입량은 48천B/D로 하루 소비량의 1.9%에 불과.

※ 일본의 자주개발원유 비율은 15.2%(55만B/D).

〈자주개발원유확보현황〉

	1996	1997	1998	1999	2000
확보가체매장량(백만배럴)	143	482	581	847	916
자주개발원유 도입량(천배럴/일)	23	37	41	40	48
자주개발률(%)	1.2	1.5	1.8	1.7	1.9

○ 금년 8월 베트남15-1광구 유전개발로 9천8백만

배럴 추가확보(총매장량 4억2천만 배럴 중 23.25%).

- 지금까지 총투자비용 32억달러 중 26억달러 회수(회수비율:78.2%).

III. 석유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

1. 복수 상표표시제도의 원활한 정착

- '92년 도입된 주유소의 단일 상표표시제를 2001. 9월부터 사적 계약방식으로 전환.
 - 단일 상표표시제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공급자의 상표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 하나의 정유사와만 석유제품을 거래도록 하는 제도임.
 - ※ 관련고시 :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공정위)
 - 그 동안 정부에서는 상표표시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금년 2001. 3.23 경제정책조정 회의에서 최종 결정.

○ 상표표시제도 주요 개정 내용

- ① 공정위 고시중 '복수상표표시 금지조항' 개정
 - 단수거래 또는 복수거래 여부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되, 판매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표시토록 함.
 - 복수거래 주유소에서의 품질관리 문제점은 석유사업법으로 보완.
- ② 석유사업법 시행령상 시설기준 등 신설
 - 복수거래 주유소는 공급자별로 저장시설 및 주유기 구분설치.
 -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비상표제품 판매 주유소임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로 추가.

○ 사적계약제의 원활한 정착 도모

- 그 동안 단일 상표표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석유업계 내부의 갈등이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단일 상표표시제 폐지로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석유유통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제고 및 업계 스스로의 경쟁력 배가 노력 필요.

2. 석유전자상거래 제도

-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
 - 그 동안 오일팩스, 에스오일, 엔페트로 등 온라인전문 10여개 업체가 자생적으로 영업중이나, 초기 단계로 그 거래 규모와 실적 등이 아직 미미함.
 - 2001.8월부터 공급자 중심의 오일체인 출범과 B2B시장의 확대영향 등으로 향후 석유전자상거래 규모가 점차 확대될 전망.
 - 기존 온라인업체와 오일체인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석유 전자상거래시장이 조기 정착되어 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경쟁력 제고.

○ OilChain의 사업특성 및 목표

- ① Non-Brand시장을 목표로 선정하여 참여자, 소비자의 후생 증대 및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도모.
 - ② 공정한 Open System 운영으로 투명한 Non-Brand시장과 공정경쟁 룰을 확립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형성.
 - '01.7월 현재 오일체인에 가입한 판매회원은 50개소, 구매회원은 174개소임
 - ③ 차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Global e-Marketplace로 성장.
 - 안정적인 보급, 거래정보의 신뢰성 및 휴대폰을 통한 간단한 거래방식 등으로 경쟁력 보유
- 정책적·제도적 지원사항
-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투명한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탈세를 조장하는 오프라인 거래에는 강력한 세무조사 의지가 필요함.

- 또한 기존의 주유소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시장을 기본으로 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잉여물량을 소화하는 등 상호 연계를 통해 두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3. 석유정제업 및 공급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유지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의하면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일반사업과는 다른 조정 및 중재 제도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작년 말부터 일부에서는 ILO의 기준 등을 내세워 석유정제업 등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노사정위 산하 노사관계소위원회 논의 안전에 포함되어, 현재 필수공익사업 안전 논의 중.

○ 그러나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에너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석유정제업의 필수공익사업 제외 문제는 좀 더 신중한 접근 필요.

- 예컨대, 지난 해 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으로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유럽전역으로 확대된 유류세 인하 시위에서는 정유사의 공급차질이 초래한 공중생활의 위협이 여실히 드러남.
-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트럭 운전자들의 정유사 봉쇄로 일부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고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제외한 수술이 취소 되었으며, 연료나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였고 군이 비상대기에 들어가 군에 의한 유류수송까지 검토된 바가 있음.

○ 또한, 현재 국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석유 수급차질에 대비하여 비축을 실시중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비축수준은 OECD회원국 등 선진외국

과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위기 대응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주요국의 석유비축일수 비교〉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지속일수	61일	123일	152일	115일

○ 결국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석유정제업의 장기 파업 등이 야기할 사회혼란은 국가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임.

- 따라서, 필수공익사업의 지정을 통한 안전장치의 마련과 평상시 양 당사자간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만이 이러한 논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

4. 원유 및 석유제품의 관세 차등화

○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와 석유제품간 실제 관세를 차이는 2%p에 불과한 실정으로 추가적인 차등화 필요

- 원유는 비경쟁 기초 원자재인 점을 감안하여 일본, 영국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무관세 내지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본 관세율 5% 적용.
- 석유제품은 2001년 기본관세율이 5% → 8%로 조정되었음에도 APEC('99.9) Standstill 조항에 따라 계속 잠정관세율 5%가 적용되다가 2001년부터 할당관세 7% 적용 중.

○ 원유/석유제품간 관세 차등화 필요성

① 국내산업이 수입제품과 공정하게 경쟁하게 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관세구조 개편(석유제품 고율의 관세 부과) 필요.

· 관세를 개편은 경쟁력이 없는 국내석유산업의 피해 구제 차원이자기 보다는, 공정경쟁 틀을 제공하는 것임.

② 주요외국의 선진국들도 Energy Security(수급안정성) 확보 및 자국내 생산 석유제품의 경

정력 보원을 위하여 원유와 제품간 2~10배에 달하는 차등관세 시행.

- ③ 차등관세 시행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비상품 수입보다는 원자재 도입을 통한 국내 가공도 및 국내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증대 가능.
- ④ 소비자 정제주의 기조하의 국내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원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정제 판매하는 방식이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방식보다 안정적인 국내 석유공급기반을 구축하는 데 유리.
 - 국내에서 원유를 정제 판매하는 방식(소비자 정제주의)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이에 따른 투자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측면에서도 관세율의 차등화 필요.

○ 따라서, 비경쟁 기초 원자재인 원유의 기본관세율은 1~3%로 인하하고, 석유제품은 원유대비 최소 2배 이상의 고율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주요 외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현황)

구분	미국	일본	EU	중국	대만
원유	5.25 ¢/B (API25미만) 10.5 ¢/B (API25이상)	무세 (215 ¥/kℓ)	무세	8% (1.5%)	2.5%
휘발유	52.5 ¢/B	1,830 ¥/kℓ (1,400 ¥/kℓ)	4.7%	14% (9%)	15% (12.5%)
등유	10.5 ¢/B	1,760 ¥/kℓ (570 ¥/kℓ)	4.7%	14% (9%)	15% (12.5%)
경유	10.5 ¢/B	1,640 ¥/kℓ (1,270 ¥/kℓ)	3.5%		5%
중유	5.25 ¢/B (API25미만)	600 ¥/kℓ (2,620 ¥/kℓ) (비중 0.9027미만)	3.5%	20% (6%)	15% (12.5%) (비중 0.9-0.93) 5% (비중 0.93이상)
	10.5 ¢/B (API25이상)	390 ¥/kℓ (2,400 ¥/kℓ) (비중 0.9027이상)			
나프타	10.5 ¢/B	1,830 ¥/kℓ (12 ¥/kℓ)	4.7%	20% (6%)	무세
아스팔트	무세	무세	무세	35% (8%)	1%
윤활기유	84 ¢/B	4.6%	3.7%	20% (12%)	N.A
원유대비 관세비율	2~10배	2.7~15.8배	3.5 ~ 4.7배	4~8배	2~5배

주: ()는 실행세율임.

5.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의 합리적 개정

○ 행자부는 2001.8.11 옥외광고물의 합리적 규제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업계관련 주요내용]

- ① 주유소 차양시설(캐노피)에 표시하는 정유사명을 가로형 간판으로 분류.
- ②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3 → 2개로 줄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① 동 법 시행령 제15조1항의 규정에 따르면 1개 업소에 하나의 가로형간판만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입법예고안대로 개정시 대부분 주유소의 가로형간판이 2개 이상이 되어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캐노피를 철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주유소 캐노피의 정유사명 표시는 광고 목적 이라기 보다는 표시광고법 등에 의한 상표표시로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고객편의 도모시설이므로, 차양면의 정유사명 표시는 가로형간판에서 제외되어야 함.

-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주유소/충전소에는 '폴싸인', '상호 간판', '캐노피'에 의한 광고를 허용하고 있음.

- ② 주유소 이용고객의 안내 및 편의제공차원에서 설치된 간판을 광고물로 인식하여 그 숫자를 2개로 줄이는 것은 불합리함.

⇒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현행대로 3개로 유지.

- 주유소의 부대사업 강화에 따른 간판 개수의 증가 추세 감안.

- 또한, 9.1부터 시행되는 주유소 복수상표표시제 고려시 복수거래 주유소의 경우는 간

판 총수량을 공급자 수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휘발유의 과도한 세금수준

○ 현 황

- 현재 휘발유에는 교통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11.5%) 및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부과.
- 또한 세전공장장에도 원유 도입시 납부하는 관세, 수입부과금 및 품질수수료 등이 포함
-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의 세금비중은 68.6%('2001.8월 평균)로 리터당 1,292원의 소비자 가격 중 총 887원이 정부부과금임.

(주요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 비교)

(단위 : 원/리터, %)

	한국 (01.8)	일본 (01.6)	프랑스 (01.6)	독일 (01.6)	대만 (00.10)	미국 (01.7)	OECD 평균
휘발유가격	1,292	1,146	1,234	1,158	798	494	1,066
(지수)	(100)	(89)	(96)	(90)	(62)	(38)	(83)
세금비중	68.6	56.5	66.7	67.2	38.8	29.9	58.1

자료) Energy Detente(2001.7, 한국제외)

○ 과도한 세금 부과로 인한 부작용

- 과도한 세금 부과로 인한 높은 휘발유 가격은 물가인상과 국민 부담으로 직결
- 가짜 휘발유의 유통 등 무차료 거래 양산
- 석유수요의 감소 등으로 정유업계 경영여건 악화

○ 휘발유 탄력세 적용 등의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

- 석유제품 원가 중 통계 불가능한 원유도입관련 비용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인상 요인의 업계 자체적인 흡수에 한계.

- 따라서, 휘발유 교통세의 탄력적인 조정 등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 필요.

IV. 맺음말

- 지난 8월 우리나라가 IMF 체제에서 벗어나긴 하였으나, '97년 말 몰아 닦친 IMF 한풍은 석유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
- 우선 석유수요의 급감 속에 정유4사 체제로 전환되는 어려움을 겪었음.
- 현재도 원가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정유업계는 국제 원유가격과 환율변동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유의 안정적이며 경제적 도입 기반을 강구함과 동시에 가스, 발전 및 대체에너지사업 등 사업영역의 지속적인 다각화도 필요.
- 또한 소비자인 국민의 신뢰와 이해를 얻지 못하고는 기업으로서의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소비자 중심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한편 국가기반산업의 역할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석유산업이 전면 자유화되기는 하였지만,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또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과 격의 없는 조언을 구하며 이를 항상 겸허히 수용하고자 함. ♣